

무더위 혈당 관리 연속혈당측정기 '덱스콤 G5' 필수



올여름 폭염도 사상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. 당뇨 환자에게 여름은 더욱 견디기 힘든 계절이다. 무더위와 열대야로 쉽게 지치기 일쑤고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흘러나와 혈액 농도가 진해지면서 일시적으로 혈당 수치도 높아질 수 있다. 여름 휴가를 떠날 때도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. 여행 중에는 식사 시간과 활동량이 불규칙해 저혈당 위험도 높아지는 만큼 가벼운 간식을 상비해야 하며, 바뀐 음식과 운동량이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더 자주 꼼꼼하게 혈당을 체크해야 한다.

여행 중 혈당 관리 '덱스콤 G5'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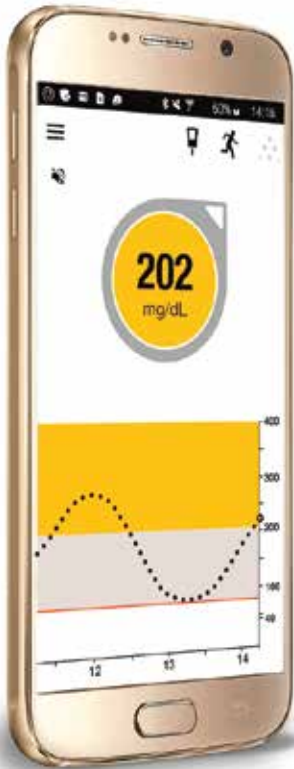
체계적인 여름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평소보다 더 자주 혈당을 체크해야 하는데, 여행 중이나 피서지에서는 혈당측정기와 소모품, 여분의 건전지 등 필수품을 항상 챙기기가 쉽지 않다. 이럴 때 유용한 제품이 연속혈당측정기 '덱스콤 G5'다. 덱스콤 G5는 1형 당뇨 환자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혈당 관리가 필요한 2형 당뇨 환자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. 피부에 장착되는 전극(센서)과 스마트폰에 당 측정값을 전송하는 송신기(트랜스미터), 당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덱스콤 G5 모바일 앱으로 구성돼 있다. 센서는 1회 장착으로 7일간 연속 사용이 가능하며, 5분마다(하루 최대 288번) 당 수치를 측정해 스마트폰 앱에 전송해준다.

'덱스콤 G5' 온라인 구매 가능...위임청구 서비스도 지원

휴온스는 전용 온라인 쇼핑몰 '휴:온 당뇨케어'(www.cgms.co.kr)에서 '덱스콤 G5'를 판매하고 있다. '휴:온 당뇨케어'에서는 제품 구매부터 배송, 사후관리까지 이 제품에 대한 통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. 구매·사용에 대한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. 올해부터 인슐린 투여가 필요한 제1형 당뇨 환자들은 연속혈당측정기의 소모성 재료인 '전극(센서)'의 부담금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. 하지만 환급 신청을 위해 요양비 지급 청구서와 연속혈당측정용 전극(센서) 처방전, 전극(센서) 구매 거래명세서, 구매 전극(센서) 개수별로 고유식별번호 등 구비 서류가 많고, 건강보험공단에 서류를 내야 해 환자들이 불편을 호소해왔다.

휴온스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휴:온 당뇨케어 홈페이지에서 '덱스콤 G5' 센서 환급을 위한 서류 준비부터 건강보험공단 제출까지 대신 처리해주는 '위임청구 서비스'를 마련했다.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신청 절차만 거치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도 센서 구매 시 건강보험공단 환급금을 뺀 본인 부담금만을 결제할 수 있다. ▼

☎ 080-890-5600



트랜스미터



휴온스 덱스콤 G5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및 센서